

“감정 연기 힘들었지만 계속 산 넘는 기분이었죠”

MBC TV 지난주 종영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출연 지수

“사연 있는 인물 연기 때 공감...연기는 시간 지날수록 더 어려워”

“로맨틱 코미디 도전해 보고 싶어...기억할 작품 3개 남길 것”

“감정 연기가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항상 부담도 되고...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대본 보면 또 감정 연기가 있으니 계속 산을 넘는 기분이었죠. (웃음)”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27)의 얼굴엔 활기찬 미소가 묻어났다. 그는 지난주 종영한 MBC TV '내가 가장 예뻤을 때'에 대해 “감사한 작품이지만 어렵고 힘들기도 했던 터라 끝나니 일단 후련하다”며 웃었다.

지수는 고교 시절 학생과 교생으로 만났지만, 자신의 형과 결혼한 오예지(임수향 분)를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순애보적 인물 서환을 연기했다. 대체로운 감정선과 깊은 멜로를 보여주며 연기적으로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등학교 때는 순수함에 중점을 뒀다면 성인이 된 후에는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교복을 입으면 마음이 되게 순수해졌던 것 같아요. (웃음) 시청자분들이 환이에 몰입해주실 때마다 감사했어요. 제가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는 방증이니까요. 환이에 이입해주는 말들은 다 감사했죠.”

지수는 “이뤄지지 않는 사람으로 힘들어하는 환이가 불쌍하고 안타까워 힘들 때도 있었다”면서도 “열린 결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사랑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사실 환이는 예지와 서로 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라도 한 번 얻어봤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웃음)”

그는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임수향에 대해 “워낙 감정이 잘 느껴지도록 연기해주셔서 몰입이 잘 됐다. 덕분에 저도 감정을 잘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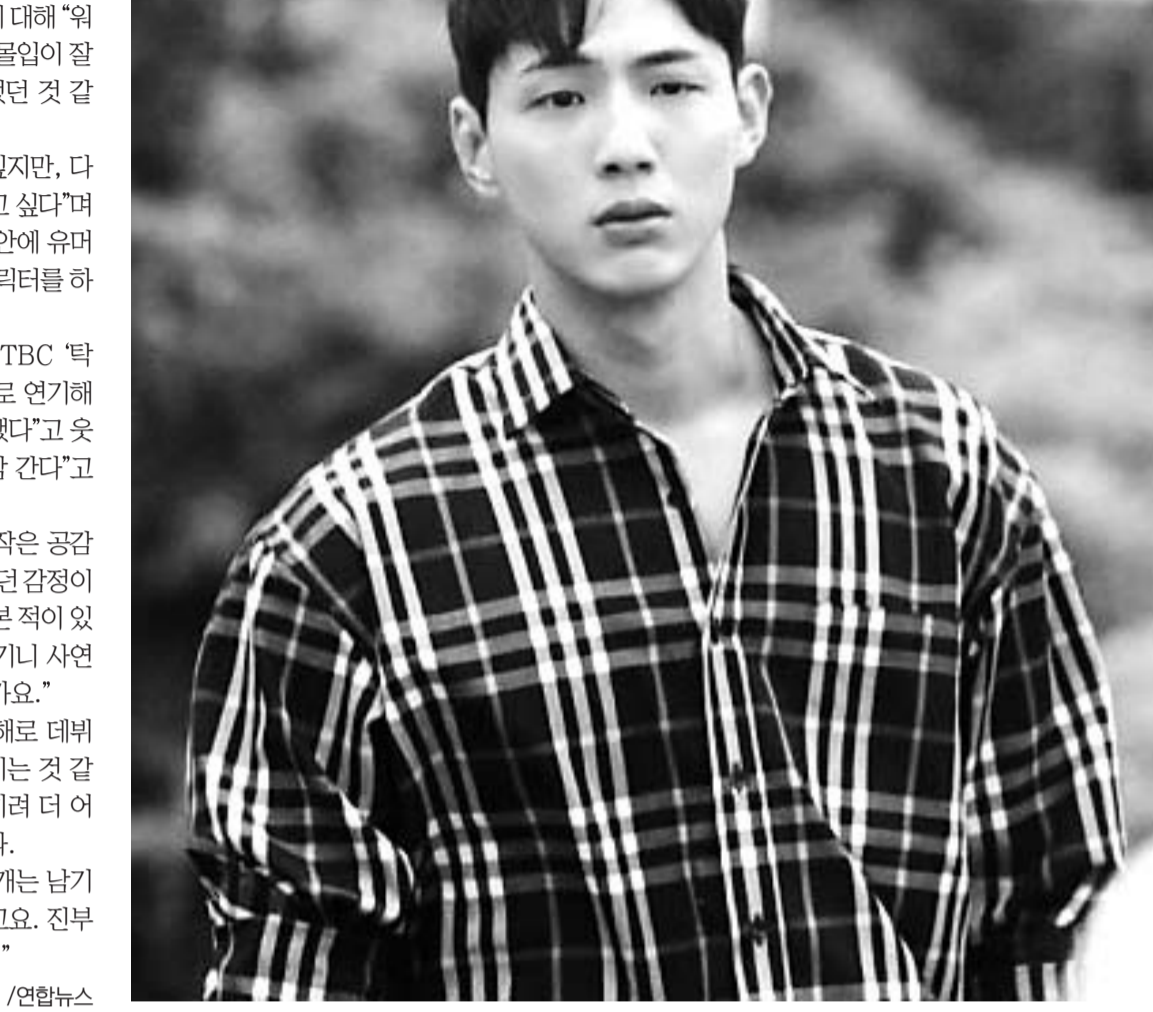
이어 “정통 멜로연기는 다시 해보고 싶지만, 다음에는 상대역과 쌍방향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로맨틱 코미디도 도전해 보고 싶다. 제 안에 유머가 꽤 있는데 그런 걸 잘 녹일 수 있는 캐릭터를 하고 싶다”며 웃었다.

SBS TV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JTBC ‘탁구공’ 등을 통해 사연을 가진 인물을 주로 연기해 온 그는 “내가 좀 불쌍하게 생겼나 생각했다”고 웃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인물들이 더 정감 간다”고 밝혔다.

“사연이 있는 인물을 연기할 때 크고 작은 공감들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느껴졌던 감정이 나 받은 상처를 저도 비슷하게나마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공감들이 생기니 사연이 있는 인물들을 볼 때 조금 더 마음이 가요.”

MBC TV ‘앵그리맘’으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5년 차를 맞은 그는 “경험들이 점점 쌓이는 것 같다”면서도 “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어렵다. 아직은 아쉬움이 더 많다”고 말했다.

“오래 기억할 만한 작품을 적어도 세 개는 남기고 싶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고요. 진부하지만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웃음)”



‘남산의 부장들’ 제93회 아카데미 영화상 한국영화 대표로 나간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제93회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선정 작품 총 13편 가운데 우민호 감독의 ‘남산의 부장들’과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을 두고 고민하다 ‘남산의 부장들’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 그해 10월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 40일간 이야기를 담은 정치 드라마다.

영진위는 “‘남산의 부장들’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의 다소 어두운 역사를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영화”라며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병헌 배우의 연기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결그룹 이달의 소녀 새 앨범 49개국 아이튠즈 차트 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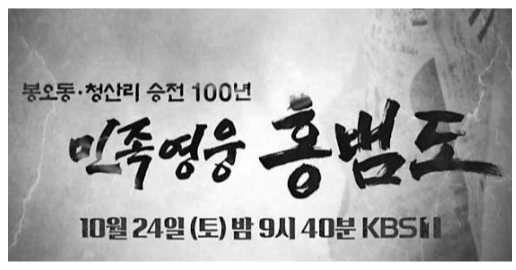
결그룹 이달의 소녀 새 앨범이 세계 49개국에서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올랐다.

22일 소속사 블랙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미니 3집 ‘미드나잇’ (12:00)은 이날 밤 12시 기준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스웨덴, 브라질, 러시아 등 49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19일 발매된 이 앨범은 ‘세상의 모든 이달의 소녀들과 함께’라는 메시지를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 ‘와이 나?’ (Why Not?)을 비롯해 ‘기억해’, ‘유니버스’, ‘숨바꼭질’, ‘목소리’ 등 8곡이 수록됐다.

홍범도 장군 생전 영상 최초 공개된다



KBS 1TV 24일 특집방송 레닌, 권총·금화 외투 선물 여운형·김규식 선생 모습도

KBS 1TV는 오는 24일 특집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에서 장군의 생전 영상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22일 예고했다.

홍범도 장군은 100년 전 상하이임시정부가 만주와 연해주의 모든 독립군을 임시정부 지휘 체계로 통합했을 때 중심에 있었다. 장군은 각고의 노력 끝에 독립군 단체들을 통합하여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승리했다.

방송에서는 한국외대 반병률 교수의 도움을 얻어 1922년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영상을 발굴해 생전 장군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한다.

극동민족대회는 제3인터내셔널 주도로 아시아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각국의 독립투쟁 전략을 논의한 대회다. 서구 열강들이 조선독립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오자 소련에 러시아가 식민지 반식민지해방투쟁을 지원하자 조선 대표 56명이 조선독립을 위해 이념과 종교를 넘어 함께 참석한 대회였다.

이번에 발굴한 영상에는 당시 54세였던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여운형 선생, 최진동 장군, 현순 목사, 김규식 선생, 김원경 선생, 권애라 선생 등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대회에서 홍범도 장군은 레닌을 직접 만난 조선독립에 대한 방략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레닌은 조선 독립군 대장 홍범도에게 권총과 금화 외투 등을 선물했다.

방송에서는 또 장군의 지도력과 전술을 분석해 독립전쟁 100년의 의미를 돌아본다. 이상훈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 전투사

보를 철저히 분석해 일본군이 어떻게 패퇴했는지 상세히 밝힌다.

아울러 제작진은 배우 최수종과 함께 홍범도와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곳곳에서 펼친 유격전 전과정의 시간대별 동선을 밝혀내 그래픽화한다. 특히 10여 회의 전투 중 하이라이프인 어란촌 전투에서 펼친 연합 전술의 묘미를 볼 수 있다.

이 밖에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에게 빼앗아 평생 사용한 아리사키38소총과 독립군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러시아제 맥심 기관총 실물을 공개한다.

진행은 이소정 ‘KBS 뉴스 9’ 앵커가 맡으며, 국악인 하윤주가 홍범도 장군에게 바치는 노래 ‘푸른 조산의 향기’를 부른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진중우도 패널로 참석한다.

KBS는 “이번 방송은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현지에서 있는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기로 해 의미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24일 밤 9시 40분 방송.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신안점 북구 서암대로95 (신안교앞 고은@상기층) 각종 국수와 돈가스, 각종 식사류 ☎ 062)531-0331, 010-5511-0331	법무사 김은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26-4 법조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방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정, 상속, 증여등상업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등 형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평화의자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차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소파, 압소용제작 천걸이 리폼전문 각종소파 천걸이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배달가능 직접전화및배달번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장 굵집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응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93(용봉동3차현대아파트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분위 ☎ 062)523-1003, 010-5355-0867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장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매매 상담, 신용 분위 ☎ 062)233-5155, 010-3615-5155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대연건설 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매산철거·삼보소개소 북구 자산로 32 (신안동) 건물상가·집수리, 오래된반 폐기물처리, 고철 파지, 스텐 특수미장, 조적, 방수, 철근, 콘크리트페인트 용접, 보일러수리, 비계, 잠·인부알선 ☎ 062)528-7005~6, 010-3625-278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분위 ☎ 010-2474-1457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암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펌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